

순천시, 모든 시민자전거 보험혜택 누린다



순천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

순천에 주민등록 두고 있는 시민 누구나 가입 은누리 공영자전거 보험도...2년 이내 청구 가능

거를 탈 수 있는 문화조성을 위해 사고 발생 시 모든 시민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순천시민 자전거 보험과 은누리 공영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시민자전거보험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타다가 사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최대 1천7백만원(만15세

미만 제외),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시 최대 3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처리와 변호사선임비용·별급지원금 1인당 2~3천만원 한도(만 14세미만 제외)로 보장하고 있다.

은누리 공영자전거 보험은 은누리 자전거 이용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후유장애 시 1천만원한도,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15천원, 타인 신체나 대물배상책임을 1억원 한도로

보장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 기준 2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문의는 시민자전거보험은 1899-7751(DB손해보험), 은누리보험은 061-741-8266(DB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 혜택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를 탈 때 안전수칙을 지켜 스스로를 보호하는 시민의식이 더 중요하다."며, "자전거 운행 시 안전운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대원사 가는 길

'코로나19 시대' 보성 숨겨둔 랜선 여행 10선 영상 '인기'

보성군은 코로나19 시대에 랜선(온라인·모바일)으로 보성의 숨겨진 여행지를 둘러보는 '삼삼오오 보성여행지 10선' 영상을 '보성관광'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영상에 댓글을 남긴 한 누리꾼은 "보성하면 녹차만 떠올랐는데 이렇게 영상을 보니 보성의 숨은 매력을 찾은 거 같아 기쁘다.", "특히 중도방죽을 보니 마음에 안정을 느껴 코로나19 끝나면 가족들과 꼭 가봐야겠다."라며 댓글을 남겼다.

이번에 온라인을 통해 소개된 장소는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명소들로 지난 10월 보성군이 발표한 비대면 여행지 '삼삼오오 보성여행지 10선'의 모습이 영상으로 담겼다.

'삼삼오오 보성여행지 10선'은 ▲중도방죽, ▲대원사 권역(대원사 길+백민미술관+티벳박물관), ▲장도 권역(장도+갯벌체험), ▲활성산성 편백숲 보부상길, ▲오봉산 권역(해평저수지+버니거파크), ▲메타세쿼이아길 권역(복내-미력 메타세쿼이아길+웅

기체함), ▲명봉역 권역(명봉역+보성의방기념관), ▲특량만 권역(비봉마리나+특량만 바다낚시공원), ▲다락금솔밭 유원지, ▲보성강 용정권역 어울마당이다.

보성군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분들이 랜선으로나마 보성 여행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앞으로 코로나19가 조금 완화되면 직접 와보길 추천한다."라고 말했다.

'삼삼오오 보성여행지 10선'은 최근 여행 트렌드 변화에 맞춰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고, 공간이 넓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으며, 최소 관광지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을 고려해 선정했다.

한편, 보성군은 '삼삼오오 보성여행지'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앞으로 보성군 관내의 다양한 매력을 찾아 백민미술관+티벳박물관, ▲장도 권역(장도+갯벌체험), ▲활성산성 편백숲 보부상길, ▲오봉산 권역(해평저수지+버니거파크), ▲메타세쿼이아길 권역(복내-미력 메타세쿼이아길+웅

보성=김덕순 기자

고흥군, 귀어·귀촌 청년 어촌정착에 힘 보탠다

지원사업 대상자 총 19명 선정 사업비 2억1천만원 투입



고흥군은 창업초기 청년어업인의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2021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19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0월, 만 40세 미만의 어업경력 3년 이하 청년어업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했다.

따라서 1차 서류심사로 자격요건, 사업추진 적합성 등을 검토하였고, 2차 심의회에서 대면심사 방식으로 어업에 대한 자세, 정착 가능성, 창업 역량 등을 평가하여 어업 예정자 1명, 1년차 4명, 2년차 5명, 3년차 9명 등 총 19명의 청년어업인을 최종 선정했다.

2021년 사업비 2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청년어업인에게 어업경력에 따라 매월 100만원(1년차), 90만원(2년차), 80만원(3년차)의 정착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며, 지원금은 어업경영비 또는 어가가계자금 용도로 사용가능하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어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안정적 정착이라는 청년들의 꿈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2018년 7월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하여 2020년 전남 귀농산어촌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광양시, '폐막걸리' 활용해 병해충방제 앞장

광양주조공사서 배출되는 폐막걸리 트랩으로 제조토록 농가에 무상공급

광양시는 광양주조공사(대표 김중현)와 협업해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 처분되는 막걸리를 농업분야에 적용해 병해충 유인제로 활용해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한다고 밝혔다.

작물에 해를 가하는 나방류, 풍뎅이류, 파리류, 노린재류 등은 알이나 번데기 상태로 월동한 후 4월 이후 성충이 돼 산란을 시작하는데, 막걸리 트랩으로 성충을 제거하게 되면 알 낳지 못한 마리가 낳을 수 있는 수백

개의 알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

해충별 성충 출현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심기(정식) 10~15일 전 막걸리 트랩을 포장에 설치하면 성충을 신속하게 제거하여 해충방제에 효과를 볼 수 있다.

김동훈 식량작물팀장은 "현재 광양주조공사(대표 김중현)와 협의해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되는 막걸리를 막걸리 트랩으로 활용되도록 관내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며, "막걸리 트랩은 해충 유

인에 탁월하여 산란기에 설치하면 병해충 방제효과가 매우 크므로 관내 농업인들이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막걸리 트랩 제작 방법은 2리터 페트병 4면에 가로·세로 3cm 길이로 U자 모양으로 뚫어 들어 올리고 폐 막걸리를 10cm 높이로 채운 뒤 설탕 1~2스푼과 주정을 소주잔으로 1~2잔 첨가하면 된다.

대량 제조 시에는 막걸리 20리터에 설탕 600~900g, 주정 2~4리터를



혼합해 준비해 사용하면 효율적이다.

막걸리 트랩 제조 및 설치, 공급과 관련된 사항은 광양시청 기술보급과(☎061-797-3560)로 문의하면 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여수시,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인턴 모집

16~17일 신청...내년 1월 4일부터 29일까지 7시간씩 주 5일 근무

여수시는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인턴 희망자 160명을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모집한다.

인턴으로 선발되면 시청, 주민센터, 보건소, 도서관, 우체국, 세무서 등 공공기관과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에 배치돼 행정을 지원하게 된다.

근무 기간은 내년 1월 4일부터 29일까지로 하루 7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 근무수당은 여수시 생활임금을 적용해 1일 67,480원이며 만근 시

1,552,040원이다.

신청자격은 16일 기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이다. 단, 대학원생과 사이버대학·방송통신대학 재학생, 평생교육원생과 대학생 행정인턴 기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시는 모집인원 160명 중 우선대상자(60명), 일반대상자(100명)를 구분해 선발하며,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추첨으로 선발한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